

2020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2020년 11월 12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일브리핑

1. 상임위원회 전체평가

1) 행정자치위원회

* 피감기관 : 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 홍종원, 위원 : 김종천, 문성원, 민태권, 우승호

- 소관시설들의 홈페이지, 체육계의 인권 문제, 미흡한 편의시설 지적 등 의원들이 직접 사례를 체험해보고 질의를 하는 모습은 고무적이었다. 특히 대전 내 지역 콘텐츠에 관한 질의들은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었보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설 운영이나 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들과 달리 문화 및 공연 예술의 특수성에 기반한 운영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은 아쉽다. 타 시도의 좋은 사례를 기초로 하여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은 좋았으나 문화 및 공연 예술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아쉬운 질의를 반복하였다. 장기화 된 체육 시설 설립에 대한 질의와 대안 요청에 대한 모습, 편의시설의 미흡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체육계에 대한 질의들은 좋은 내용들이 많았다. 지역내 예술인 문제 등 코로나로 인하여 축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연에 대한 이야기는 필요하기는 하였으나 거의 대부분이 당위적인 이야기에서 그쳤다. 전체적인 실무와 현실적인 운영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하는 지적들이 많은 것이 아쉬웠다.

2) 복지환경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자료 검토

3) 산업건설위원회

* 피감기관 : 도시재생주택본부

* 위원장 : 김찬술, 위원 : 남진근, 박수빈, 오광영, 이광복, 윤종명)

- 일부 질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원이 본인 지역구에 대한 질문에 집중되어 자료조사 및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시민 전체의 대표성을 띤 태도가 부족하다.. 중요한 사안을 담은 질의가 많지 않았다.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을 만한 날카로운 질문이 많지 않았고 답변 역시 충분히

질의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했다. 피감기관 본부장이 재직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대부분이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철거하고, 건설하여 주민들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식의 하드웨어 중심의 구시대적 발상을 가지고 있었다.

4) 교육위원회

* 피감기관 : 대전광역시 교육청

* 위원장 : 구본환, 위원 : 김인식, 우애자, 정기현, 조성철

- 상임위 변동으로 새로 편성된 두 의원의 경우 언론에 보도되는 이슈 중심의 질의가 이어졌고, 교육위 경험이 많은 두 의원은 각각의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채로 질의하여 교육청의 답변에 논리를 잃는 모습을 보여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준비가 부족해 보였다. 전반적으로 한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교육청의 방어적인 답변 태도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분위기가 경색이 되었을 때, 다른 의원들이 질의한 의원을 도와 행정사무감사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2. 상임위원회 일일브리핑

1) 행정자치위원회

* 시행 : 2020년 11월 12일(수) 10:00 ~ 16:50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피감기관	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 홍종원, 위원 : 문성원, 김종천, 민태권, 우승호

(2) 행정자치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행정자치위원회-문화체육관광국 주요 안건

1)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 아시안 게임 유치 실패 과정에 대한 확인과 대안 부재에 대한 지적.
-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충청권 유니버시아드 유치 계획 확인 및 대안 요청
- 장기화된 사업인 만큼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노력 및 결과 요구
- 스포츠 시설간의 긴밀한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설 설립 요청

2) 문체국 소관시설 편의성 문제

- 한밭도서관 열람실 리모델링으로 인한 불편 사항 지적 및 공지에 대한 당부
- 시립미술관한 비롯한 소관시설 홈페이지에 대한 편의성 및 접근성 문제 제기
- 대전 예술의 전당 유료회원의 혜택에 대한 지적 및 공연의 개방성 요구
- 예술의 전당을 비롯한 대시민 예술 사업들 전수조사를 통한 시민의 이용편의성을 위한 개선책 요청
- 이동접근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 편의성 개선 요청

3) 마을단위 체육시설 현황

-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과 관리 주체 및 구별 개소수와 예산의

차이에 대한 확인 요청

- 코로나로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운동하려는 사회 분위기에 맞는 관리 방안 요구

4) 대전문화재단 운영

- 이전 대전문화재단의 운영 태만과 관리 부실에 대한 확인 및 조직 개편 필요성 당부
- 대표이사의 긴 공백 및 타 시도 대비 저조한 기부금에 대한 방안 요청
- 기부금 모집 단체 등록 확인 어려움과 후원금에 대한 내용 공개에 대한 문제 지적

5) 대전방문의해 및 마케팅

- 코로나로 이제 3년째에 접어든 대전 방문의 해 전략을 새로 구상해야 한다는 점 당부
- 타 시도의 좋은 홍보모델을 벤치마킹 하여 대전의 이미지 개선 효과 고양 요구.
- 대전 내에 있는 좋은 관광자원들의 연계 필요성
- 환경과 개발이 상충하고 있는 계획이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 요청.

6) 문화예술 공연 축소

- 공연이 축소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들의 문제 지적
- 예산에 대한 고민과 대안 마련으로 지역 예술인 경제 활성화 요청
- 창작 공연시 외지 사람들보다는 지역 내 사람들이 많이 일할 수 있도록 당부
- 코로나에 따른 공연 사전 위험도 평가를 통한 지침 보강 당부

7)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현황

- 서울 및 다른 이스포츠 경기장 사례를 들어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 당부
- 경기가 없을 때 상시적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및 관련 공간으로서의 개발 요청

8) 한밭도서관 대출문제

- 현재의 대출 예약 시스템 문제 및 미진한 장애인 편의 사업 개선 요청

9) 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발급 현황 및 대상, 발급률 확인
-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요구

10) 체육계 인권 및 정규직 전환 문제

- 스포츠인권조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여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당부
- 생활체육지도사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개선 당부

11) 한국민속예술제

- 전통성 보다는 놀이행사로 진행되었다는 지적
- 실제 전통놀이가 아니라는 문제 제기

12)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의 편의성 문제

- 전국단위의 체육행사를 유치하기에는 편의시설 미흡

13) 한밭야구장

- 대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의 발전 가능성 언급
- 관광문화스포츠복합테마파크로서 인식 제고 요청

14)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 스튜디오 큐브의 미흡한 기대효과에 대한 문제제기
- 당초 기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3) 기타

(4) 상임위원회 개인 평가

- 김종천 : 코로나의 영향으로 공연 축소로 인한 지역 내 예술인 생계문제와 온라인 공연 현황과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에 대한 당위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현실적인 타계책에 대한 대안보다는 문제만 제기하는 모습이 아쉽다.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기는 하였으나 근거가 되는 자료가 부족하고 준비가 없었다. 체육 시설의 미흡한 편의시설에 대한 지적은 의미 있었다.

- 우승호 : 공연시설의 예약시스템의 문제, 한밭도서관 대출시스템, 장애인 보조시설 등 시민의 편의성에 기초한 의미 있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문화 및 공연예술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운영방식에 일방적인 주장이나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아쉽다.

- 문성원 : 대전문화재단 의 기부금 저조 현상, 대전의 마케팅 문제, 문화누리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의를 하였고 적절한 사례와 자료를 이야기 하였다. 다만 본인이 준비한 이야기를 하기위한 질의하는 부분은 아쉽다. 마케팅 방식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온 지점은 좋았으나 (충주 TV, 이날치 홍보영상) 대전의 실정에 맞는 대안책인지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 민태권 :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대전문화관의 인원 감소 문제를 예시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문화예술시설의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 체육계 인권 문제와 관련된 질의 등 의미 있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대안제시 보다는 사실 확인 및 당위적인 이야기에서 그친 점이 아쉽다.

(5)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평가

소관시설들의 홈페이지, 체육계의 인권 문제, 미흡한 편의시설 지적 등 의원들이 직접 사례를 체험해보고 질의를 하는 모습은 고무적이었다. 특히 대전 내 지역 콘텐츠에 관한 질의들은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엿보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설 운영이나 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들과 달리 문화 및 공연 예술의 특수성에 기반한 운영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은 아쉽다. 타시도의 좋은 사례를 기초로 하여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은 좋았으나 문화 및 공연 예술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아쉬운 질의를 반복하였다. 장기화 된 체육 시설 설립에 대한 질의와 대안 요청에 대한 모습, 편의시설의 미흡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체육계에 대한 질의들은 좋은 내용들이 많았다. 지역내 예술인 문제 등 코로나로 인하여 축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연에 대한 이야기는 필요하긴 하였으나 거의 대부분이 당위적인 이야기에서 그쳤다. 전체적인 실무와 현실적인 운영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하는 지적들이 많은 것이 아쉬웠다.

2) 복지환경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자료 검토**

3) 산업건설위원회

* 시행 : 2020년 11월 12일(목) 10:07 ~ 17:23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피감기관	도시재생주택본부

■ 위원장 : 김찬술, 위원 : 남진근, 박수빈, 오광영, 이광복, 윤종명)

(2) 산업건설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산업건설위원회_도시재생주택본부 주요 안건

① 도시재생 사업과 트램에 대한 질의

-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트램노선을 고려하여 계획수립했는지 질의함.
구체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짜임새 있어야 함을 지적함. 또한 트램에 대해서 종합적 컨트롤 타워로 움직일 수 있는 본부가 있어야 함을 언급함.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사업 진행할 것을 주문함.

② 재개발 재건축 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당부에 대한 질의

- 도안지구3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위탁사업의 수지균형 확보를 위해 과도한 공동주택용지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 시의 동과 서의 불균형이 심각함을 언급하며 (가령 동구의 인구가 서구나 세종시로의 유출됨)을 지적하며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이런 불균형을 고려하여 진행할 것을 주문함.

③ 공공임대주택 사업 내용 검토와 필요성에 대한 질의

- 서울시의 실험적인 공공임대주택이 큰 호응을 얻고 있듯이 대전에서도 공공주택에 관하여 다양한 형태를 실험적으로 시행해보기를 권함. 대전시는 규모가 비슷한 타 시에 비해서 공공주택 공급량 자체가 적은 편임.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공주택을 통해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정책을 수

립하여 이 이익을 활용하여 또 다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등 이익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으면 함.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수준을 끌어올려 많은 시민들이 집을 사는 생각을 하지 않고도 양질의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④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성매매 집결지 문제 해결에 대한 질의

-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에 성매매 집결지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은 대전역 앞을 어떻게 정비할까 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임을 지적함. 성매매 집결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첫번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직접 그 집결지 안으로 들어가서 종사하는 여성들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자활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지적함. 이 과정을 수행해내기 위해선 해당분야 전문가인 활동단체, 연구원등과 협업하여 진행할 것을 주문함

⑤ 대전시 집값 상승 해소 방안에 관한 질의

- 대전시 집값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음을 지적함. 상승현상 막기 위해서 1차적으로 청약 신청 가능 대전 실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등의 1차적인 조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거주 대전 주택 소유자 비율이 17년 14%였던것이 20년 기준 21%까지 상승했음을 지적함.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2차적인 규제 등의 방안과 구체적으로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주문함.

(3)기타

(4) 상임위원회 개인 평가

- 박수빈 : 특정 지역(둔산동)에 대한 질문이 많음. 중앙동성매매집결지 질의에 대하여 본부장 답변에 사실과 다른 부분(시에 여성 자활 조례가 재정되었다고 언급하였으나 자활조례 없음)이 있음에도 지적 없이 지나감. 자료조사 등을 포함한 사안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이광복 : 준비해온 질의들이 다양했으나 준비해온 질의를 끝낸 이후 장시간 자리를 비움.(11:00~11:37)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조사가 많이 되어있음.

단, 본인 지역구에 대한 질의(도마동, 내동 등)에 집중되어 있음.

- 남진근 : 의미 있는 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인 지역구에 집중하여 질의함.

- 오광영 : 타 의원에 비해 시 전체의 대표성을 띤 질의(대전역 성매매집결지, 시민을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제공)를 함. 질의에 대한 자료조사가 탄탄함. 시민의 복지에 관한 양질의 질의를 함.

- 윤종명 : 준비해온 질의가 별로 없었고 질의 내용이 모두 본인 지역구(동구)에 관한 내용에만 국한되어 있음.

5.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평가

일부 질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원이 본인 지역구에 대한 질문에 집중되어 자료조사 및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시민 전체의 대표성을 띤 태도가 부족하다.. 중요한 사안을 담은 질의가 많지 않았다.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을 만한 날카로운 질문이 많지 않았고 답변 역시 충분히 질의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했다. 피감기관 본부장이 재직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대부분이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철거하고, 건설하여 주민들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식의 하드웨어 중심의 구시대적 발상을 가지고 있었다.

4) 교육위원회

* 시행 : 2020년 11월 12일(목) 10:07 ~ 17:50

(1)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 위원장 : 구본환, 위원 : 김인식, 우애자, 정기현, 조성철

(2) 교육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 교육위원회_주요 안건

① 인성채움교실 운영 관련

- 인성교육 강사는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장이 아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다.
- + 강의 후 평가를 통해 강사 질관리 하겠다.

② 신일여중고 스쿨미투

- 서대전여고에 이어 신일여중고에서 스쿨미투가 일어났다. 학생 전체 전수조사가 어려우면 여학교라도 전수조사 실시해야한다.
- +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어렵다. 사안이 발생한 학교 전수조사를 하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전문가들도 성폭력으로 판단 내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사항이니 종합 감사를 통해 학급 수 감축 등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스쿨미투를 다른 학교들 모르게 조용히 처리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본다.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피해학생들이 상급 학교로 이동하면 서도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 학생들에 대한 단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 +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로 오히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알게되는 문제점도 있다. 교육부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대전만의 방법을 찾아라. 성범죄처리지원단을 만들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또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 + 능력이 부족해 원하는 답변을 못해서 죄송스럽다. 다각도로 연구해 보겠다.

③ 교직원업무경과 관련

- 교원업무경감 만족도 상승을 위해 수고했다. 지속적인 업무경감과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 타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지원센터

운영을 고려해 보라.

+ 10개의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운영중인 타시도 의 장단점을 검토해서 설립여부 결정하겠다. 그런데 기존 인력 재편성이 필요하다.

+ 초등은 중고등학교 달리 행정직원이 적고 직급이 낮아 교장이 교사에게 주는 경우가 많다. 행정과 교육을 분리하기 어렵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교육과 관련되어있다. 또한 업무분장은 교장의 권한이다.

- 교육청의 재량권을 드렸는데 못하겠다고 하시면 조례 제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잡겠다.

(3) 기타

- 정회시간을 지키지 않는 모습도 시의원들의 갑질이고 볼 수 있음

(4) 상임위원회 개인 평가

- 김인식 : 원격 수업으로 인해 발생한 학습 격차 해소 방안을 요구함. 또한 학습부진아 지도에 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2018년 이후로 국가 학업준성취도 방식이 바뀌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질의를 함. 제대로 자료를 인지 못하여 질의에 자신감이 없었음. 2015년 만들어진 학생노동인권조례가 인문계고에서도 켜지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함.

- 우애자 : 효교육 강사가 주로 학교장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을 지적하고 대안교육 위탁 기관 지원 요청에 관한 질의를 진행함. 질의 내용이 대전 전체 시민을 대표하기 보다는 각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짐. 또한 스포츠강사 예산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질의를 진행하였으며, 교육국장이 의원의 질의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면 지적을 하고 답변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진행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음.

- 정기현 : 조성칠 의원과 교육국장의 공방 후 질의를 진행하여 사립학교가 가진 특수성을 제어하기 위해 종합 평가를 통해 사립학교의 학급 수 감축 등 강한 제재 방안을 요구함.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 타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업무지원센터 운영을 제안함. 또한 학급 급식실 위생 점검 시 학교 자체 평가와 교육청 정기 점검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데 타시도에 비해 HACCP 운용학교가 적은 것을 지적하며 확대하도록 요구함. 살균수 제조기 수의

계약에 따른 문제점 지적, 무상교복 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와 개선 요구, 학교소방훈련 및 민방위 재난훈련 교육 업무가 교사가 맡지 않도록 요구했는데 교육청이 답변을 하지 않자 조례 제정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함. 파견교사 수와 교육전문직 수를 줄이도록 요구하는 등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점이나 학교의 상황에 필요한 적절한 질의를 진행함. 또한 조성칠 의원에게 대한 교육청의 방어적인 태도에 대해 질책을 하는 등 행정사무 감사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함.

조성칠 : 교육국장의 방어적인 태도로 분위기가 경색되기도 하였으나 끈질기게 스쿨미투와 사학 문제에 대해 질의를 진행함. 오전에는 감정적인 모습으로 논리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오후에는 여학교 중심의 전수조사를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인 지원을 요구함. 또한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실질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함. 또한 대전교육정책연구소가 대전교육의 자료수집 및 조사기관이 아닌 진정한 싱크탱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함. 교육청의 자료제출의 무성의함을 지적하기도 함.

5. 교육위원회 전체 평가

상임위 변동으로 새로 편성된 두 의원의 경우 언론에 보도되는 이슈 중심의 질의가 이어졌고, 교육위 경험이 많은 두 의원은 각각의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채로 질의하여 교육청의 답변에 논리를 잃는 모습을 보여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준비가 부족해 보였다. 전반적으로 한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교육청의 방어적인 답변 태도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분위기가 경색이 되었을 때, 다른 의원들이 질의한 의원을 도와 행정사무감사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